

COME & SEE

2026 BETHEL THEME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위하시도다"
(시편 66장 5절)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www.bkc.org ♦ bethel@bkc.org
Tel: 949.854.4010 ♦ Helpdesk(Text-only): 949-229-1181

교회학교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영아부(0-1.5세) / 본당 1층 영아부실
9:00AM, 11:00AM
- 유아부(1.5-3세) / 본당 2층 유아부실
9:00AM, 11:00AM
- 유치부(3세-PreK) / 할렐루야채플
9:00AM, 11:00AM
- K-1(킨더가든-1학년) / 임마누엘채플
9:00AM, 11:00AM
- 유년부(2-3학년) / 유년부실
9:00AM, 11:00AM
- 초등부(4-5학년) / 체육관
9:00AM, 11:00AM
- 영어중등부(BYM JHS) / 찬양채플, 비전채플
9:00AM(찬양채플), 11:00AM(비전채플)
- 영어고등부(BYM HS) / 비전채플, 비전센터09호
9:00AM(비전채플), 11:00AM(비전센터09호)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조이채플
9:00AM,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베델그레이스채플, 온라인
9:00AM, 11:00A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공중파 TV 방송:
미주 CGN TV 채널 44.9 · 화요일/오후 3시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6시 45분 · 목요일/오후 12시 30분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Prisider **예배 인도자**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1부/만유의 주 앞에(찬26/새22장)
- 기도 Prayer..... Altogether **다같이**
1부/장지봉 집사 2부/황대경 집사 3부/홍락기 장로 4부/김에스더
- 찬양(1부) Anthem..... Bethel Choir **베델 콰이어**
1부/여호와와 위대하다(J. B. Herbert 작곡)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시편(Psalm) 69:22-36..... Altogether **다같이**
4부/요한복음(John) 5:30-38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Jacob Park **박경철 목사**

변칙적인 고난 앞에서

4부Rev. Solomon Kang **강솔로몬 목사**
Solus Christus(17) 무죄 추정의 원칙

- 적용찬양 Song of Response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Dedication and Closing Altogether **다같이**
1, 2, 3부/Come and See 50
- *축도 Benediction Rev. Jacob Park **박경철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슈퍼 블룸

The Super Bloom



박경철 목사 / Rev. Jacob Park

우리에게 익숙한 '데스밸리'는 그 이름만큼이나 가혹한 땅입니다. 연평균 강수량이 극히 적어 생명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황량한 광야는 절망과 불모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수십 년에 한 번씩, 지켜보는 이들의 눈을 의심케 하는 경이로운 장관이 펼쳐집니다. 바로 '슈퍼 블룸' 현상입니다. 기다림은 죽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평소에는 먼지와 메마른 흙뿐인 이 계곡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면, 땅속 깊은 곳에서 수십 년간 숨죽여 기다리던 수조 개의 야생화 씨앗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켭니다. 2016년 이후 10년 만인 올해 2026년 봄, 데스밸리는 다시 한번 형언할 수 없는 찬란한 꽃의 바다로 변모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이 거친 벌판에서 꽃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바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씨앗들은 죽어 없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지표면 아래에서 자신들을 깨울 '충만한 비'를 기다리며 생명을 보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멈춰 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님을 데스밸리의 꽃들은 온몸으로 증명합니다.

우리네 인생의 계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나긴 가뭄처럼 내 삶이 메마르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 같은 막막한 순간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황무지일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며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 전해진 한 조종사의 소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적진에서 피격되어 모든 소망이 끊어진 36시간의 사투 속에서, 그가 구조대를 향해 보낸 마지막 신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였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터져 나온 이 고백이야말로 메마른 광야를 슈퍼 블룸으로 뒤바꾸는 영적 '변곡점'이 됩니다.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바꾸는 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히 11:1)라는 말씀처럼,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비를 미리 보며 땅 밑의 씨앗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데스밸리처럼 황량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날, 당신 안에 숨겨진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찬란한 꽃을 피워낼 것입니다. 베델의 50주년 회년은, 당신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슈퍼 블룸'이 될 것입니다.

"Death Valley," a name familiar to many, is a land as harsh as its name suggests. This desolate wilderness- where the average annual precipitation is so scant that it seems no life could possibly survive- has become a symbol of despair and barrenness. However, once every few decades, a wondrous spectacle unfolds here that makes onlookers doubt their own eyes: the phenomenon known as the 'Super Bloom.' Waiting is not death; it is preparation. Usually filled with nothing but dust and parched earth, when this valley is drenched by extraordinary heavy rains, trillions of wildflower seeds that have been waiting breathlessly deep underground for decades stretch and awaken all at once. In the spring of 2026—ten years after the bloom of 2016—Death Valley has once again transformed into an inexpressibly brilliant sea of flowers. Until the rain falls, someone expecting flowers in this harsh field might look like a fool. Yet the seeds had not died or disappeared. They were simply preserving their life beneath the scorching surface, waiting for the 'abundant rain' that would wake them. The flowers of Death Valley prove with their entire being that just because something is invisible to our eyes does not mean it doesn't exist, and just because something has paused does not mean it is over.

The seasons of our lives are no different. Sometimes, our lives feel parched like a long drought, and we face bleak moments where it feels like no amount of effort will bear fruit. But remember: the seed of the 'Word of God' planted within us never perishes. Even if it looks like a wasteland with no hope in the eyes of the world, that Word holds its life force within us, waiting for the most appropriate time. A recent story about a pilot resonates deeply. During a 36-hour struggle for survival after being shot down in enemy territory—where all hope seemed lost—the final signal he sent to the rescue team was "God is Good." He did not look at the circumstances; he looked to God who rules over them. This confession, bursting forth from the middle of despair, becomes the spiritual 'inflection point' that transforms a parched wilderness into a Super Bloom.

Faith is the power that turns the unseen into reality. As it says in Hebrews 11:1, "Now faith is the assurance of things hoped for, the conviction of things not seen," faith is the act of seeing the rain before it arrives and blessing the seeds beneath the earth. Even if your life feels as desolate as Death Valley right now, do not lose heart. On the day the sweet rain of grace falls, the seed of the Word hidden within you will surely bloom into a brilliant flower. May the 50th Anniversary Jubilee of Bethel be a "Super Bloom" of God in your life as well.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박경철 목사

변칙적인 고난 앞에서 시편 69:22-36

1. 변칙적인 고난이 찾아 왔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시편 69:4,9-10)

2.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2-27절)

3. 하나님 앞에서 아이와 같이 진솔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29절)

4. 하나님의 말씀(Canon)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 나의 삶을 나누어 봅시다.(36절)

5.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 내가 다윗보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포장하려는 모습을 내려놓고 늘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진솔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 말씀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갑시다.

적용하기



■ 적용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예배 스케치
고난주간 특별 저녁집회

의의 면류관으로 자유를 누리는 은혜



2026 고난주간 특별집회는 'Come & See JE-SUS 가시관에서 의의 면류관으로'의 타이틀로, 필라델피아 더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임재형 목사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의 설교를 필두로 세인트루이스 한인 제일장로교회 김홍식 목사님, 더베델교회 강문구 목사님, 마지막 날인 성금요일은 김한요 담임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증인들'이라는 말씀으로 대미를 맞아 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드러내야 하고, 우리가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진짜 버림을 받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

리의 죄와 비참함을 당신의 아들에게 쏟아부으셔서 우리가 용납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입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며, 동시에 인간의 죄가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직면하면 내 죄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그것을 보는 것이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설교를 통해 알게 하심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기도한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내 죄를 합리화하며 사는 나를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의 중심은 십자가임을,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은혜, 죄인을 용서하는 은혜, 죄인을 사랑하는 은혜이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와 승리를, 생명과 기쁨을, 사랑과 소망을, 영광과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집회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 단번에 해결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살기를 소망하게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며 버림받은 그 절규를 몸소 감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아바아 버지라 부를 수 있는 큰 은혜를 값없이 받은 사람으로, 나의 연약함과 아픔을 자랑으로 삼아 이 연약한 자에게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강은혜 집사

사역 후기
전도폭발 훈련

전폭 임상 훈련을 다녀와서



저는 2024년 봄 학기에 1단계 훈련생으로 전도폭발 훈련을 시작하였고, 지금은 5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에 저희 교회에서 82차 전도폭발 임상 훈련이 열리게 되어 멀리 가지 않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되어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12분이 참석하셨고, 캐나다, 미 동부, 시애틀, 엘에이 등에서 18분이 참석하셨습니다. 먼 곳에서 달려오신 성도님들의 전도폭발을 향한 열정에 감동되었고, 3박 4일간의 뻘뻘한 일정 가운데 다시 1단계 훈련생



으로 돌아가 말씀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는 남이 하는 일로 생각했던 제가 임상 훈련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정확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신 자신의 삶을 나눔으로서 공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 주신다는 것을 전도 현장에서 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임상 훈련 중에도 각 조별로 세 번의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처음 만나는 분들로 구성된 조였지만 같은 훈련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폭발이 '폭발'인 이유가 복음 제시를 받은 한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또 네 사람으로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을 들으며,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양육하여 제자로 세우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전도폭발, 선교에 활용하는 전도폭발, 영어로 하는 전도폭발, 시니어 전도폭발 등 다양하게 대상을 늘려 나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전도는 불패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유일한 실패다. 열매를 맺으려면 10년은 꾸준히 해야 한다.'는 목사님 말씀을 도전으로 받았습니다. 좋은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총괄하신 팀장님과 스태프분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신 찬양팀, 식당에서 하루 세 끼와 간식까지 챙겨 주신 우리 베델 성도님들의 아낌없는 헌신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유선영 권사

간증
새가족 환영회

다시 세워진 믿음의 축복



저는 4대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신앙을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쫓겨난 눈을 비비며 아침저녁으로 가정예배를 드렸고,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은 어머니께 크게 혼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이 주일 아침에 본 TV 프로그램 이야기를 나눌 때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한 매년 12월 31일 자정이 되면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며 새해를 맞이했고, 친구들이 종로 보신각 타종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면 그것 또한 부럽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믿음 안에 세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신앙의 습관은 제 삶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중학생 시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였고, 그 이후로 신앙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다 사용하며 살아가고자 '귀히 쓰이는 그릇'을 삶의 모토로 삼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에 나와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때로는 신앙이 흐트러질 때도 있었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믿음의 중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한동안은 예배만 드

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김한요 목사님의 따뜻한 말씀과 영적인 인도하심을 통해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고, 베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인도해 주신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하면서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깊이 느낄 수 있었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큰 감사와 기쁨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며 귀히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Becky Baek

간증
세례 입교식

어릴 때 유아세례를 받으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미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인생을 즐기자"라는 문화와 주변 사람들, 그리고 환경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택했고, 이후에는 제 생각과 가치관, 기준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여러 곳에서 지내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몇 년 전 미국에 와서 지인을 통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이 자리가 저에게 맞는지 고민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멀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교 공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주저하지 않고 붙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

그분과 함께 걷는 삶

정하며 입교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배워야 할 점도 많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결단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윤규탁(예살)

My encounter with God has been a very important moment in my life, and I am deeply grateful that He has saved me. Before I met God, I used to be a contemptuous and mean person, struggling with sins such as being judgmental and prideful. However, after I met Him, my character and my life have changed significantly for the better.

I am much happier because of God's love, and He has filled my heart with love so that

I may share it with others. I try to live with God's Word as the foundation of my life and walk with Jesus wherever I go. I am grateful that His mercy allows me to continue walking with Him even when I fail.

I have come to realize that even on my worst days, He has always been with me, guiding me through people and teachings that have shaped who I am today. I strive to grow spiritually, strengthen my relationship with Christ, and live according to His will.

손유민(11학년)



교회학교 - 유년부
미디어 금식

더 가까워진 하나님과의 시간



이번 passion week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텔레비전도 안 보고 게임도 하지 않는 '미디어 금식'을 하면서 처음에는 조금 심심했지만 미디어 대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6일 동안 매일 부흥회 모임과 헵시바 기도회까지 참석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교회가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전도사님 말씀들을 들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거든요. 미디어를 끄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알게된거 같았어요. 이번 passion week을 통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김준서(3학년)

Media fasting was super hard. When I got home, I usually watched gymnastics videos on YouTube. Sometimes it was really challenging, and I even forgot because I like listening to fast gymnastics music for practice. My mom reminded me, and I obeyed and followed the media fast.

I am happy I did it. I felt closer to God and Jesus, and it felt very meaningful. I committed myself to finish media fasting. At least I can do this during the Lent season to think about Jesus.

At first, I thought I couldn't do it, but now I feel closer to God. I want to keep reducing my media time and spend more time with God.

During media fasting, it was hard not to use my iPad and other devices, but I really enjoyed going to church and worshiping. I liked praying, and I prayed in the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before going to church. To help myself not use my devices, I distracted myself by doing other things.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for us and struggled while carrying it, I felt a little like that during media fasting because it was hard not to use my devices. It helped me understand, even just a little, how much Jesus went through for us.

Summer Lee(3학년)

Passion week, media fasting and watching devotionals brought me closer to God and got me to know and learn about Jesus and the Bible. I thought about what Jesus went through for us for our sins, I also got to spend more time with my family



Jade Barbosa(3학년)

and loved going to church every day. It is sad what Jesus had to go through but I'm happy because I can have an everlasting life through him.

Tori Lee(3학년)

When I heard about the media fasting, it reminded me of last year. It wasn't hard because we had school days. But this year, it is more challenging because we have spring break.

The media fasting is boring. I draw, read but it's still not fun enough. It is painful because I can't watch movies. Every time I eat snacks, I have a temptation to watch movies.

However, it feels worth it. I can focus on Q.T. without distractions. Every time I feel bored and painful, it reminds me of how Jesus went through a hard time, how patient Jesus was and how Jesus handed his desire to God. I'm thankful that I can remember Jesus by doing media fasting.

Sahrang Yun(3학년)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주성필 목사
- 소망/선교: 이충경 목사
- 기쁨/찬양/전도: 박경철 목사
- 화평/온유/성경: 박성권 목사
- 사랑/셀/울림: 조태현 목사
- 충성/Joy/훈련: 서동민 목사
- 믿음/새가족/QTin: 조동현 목사
- 은혜/예배/BCA: 배홍수 목사
- BGC 담임: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목사
- BGC(Young Adult): Daniel Yoon 전도사
- 예살채플(총괄): 강솔로몬 목사
- 예살채플: 공병주 전도사
- 예살채플: 이형석 목사
- 예살채플: 최요셉 인턴 전도사
- 영어고등부: 김한나(Hanna) 전도사
- 교회학교(총괄)/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목사
- 영어중등부: 신재민 전도사
- 초등부: 이지원(Cindy) 전도사
- 유년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K-1: 정가영(April) 전도사
- 유치부/아기학교: 전소연 전도사
- 유아부: 이경은 전도사
- 영아부: 최미정 전도사
- 소망부: 김재은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란혜 전도사
- 환우: 정티나 목사
- 병원심방: 김현일 협동목사
- 상담: 황성철 협동목사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베델 콰이어 및 찬양팀◎

- 지휘자: 김형직 목사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 반주자: 한현미, 박정연
- 예살 워십: 조요셉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조주은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안현미, 이미옥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방송실: 민윤기, 김앤드류(인턴)
- 목회지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컨텐츠 디렉터: 최중형
- 음향: 강창위, 한 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IT: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지역광고

선교 바자회

베델 성도 여러분, 선교 바자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 바자회는 다음세대의 선교를 후원하는 목적이므로 BYM 중고등부 자녀들과 예살 청년들이 함께 판매할 명란젓, 새우젓, 오징어젓과 같은 각종 젓갈류와 각종 곡물과 냉동 생선과 고기 식품들) 소분하고 정리하고 당일 판매까지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교회 코트야드 부스에서는 주일 오후까지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향팀에서는 그동안에 쌓인 실력으로 맛있는 고등어조림을 비롯한 맛깔스러운 19가지의 반찬을, 사모님들께서는 그 래놀라 및 마리골드 차와 장미차를, 10개의 목장별 음식 부스에서는 잔치국수, 김치전, 총무김밥, 온육사발, 김치말이 동치미 모밀국수, 돈가스 번듯, 황해도 만두, 떡볶이, 오뎅, 솜사탕, 각종 음료와 고품질의 커피 부스 등이 운영되며,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 상담 부스도 운영합니다. 도네이션 물품 판매 부스에는 K-뷰티 화장품, 훈제 오리, 커 피믹스, 건강식품, 티셔츠 등과 자동차에 싣고 다니는 텐트 Skycamp도 1대, 핸드메이드 퀼트, 냄비 받침도 준비됩니다.

다음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준비한 바자회에 성도님들의 적극적 '소비'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선교 바자회에서 구매하는 물건과 음식들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소비'가 아닐까요? 베델 성도님들 가족들과 셀 식구들과 안 믿는 전도 대상자들과 선교 바자회에 초대합니다. 주일(12일) 코트 야드 부스에서는 오후까지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 주문>

- ▶ 일시: 4월 18일(토) 헵시바 예배 후 오전 7시 30분-오후 1시
- ▶ 장소: 베델교회 코트야드
- ▶ 문의: 김응진 집사 (213)215-4977

예매 봉사자

주일에매 대표기도(4,5월)	4/19: ①부-한상섭	②부-이양수	③부-홍승평	④부-이주혜
	4/26: ①부-최동주	②부-구윤모	③부-최호경	④부-김도윤
	5/3: ①부-최재호	②부-이명환	③부-황인수	④부-최현우

헵시바 토요일 새벽 대표기도(4,5월)	4/18: 박철용	4/25: 배진용	5/2: 서덕령	5/9: 김 샘
강단꽃(4,5월)	4/12: 왕혜원	4/19: 김동심, 노성애, 조미리	4/26: 오영옥	5/3: 노성애, 전정례

[의무실(오전 8:30-오후 1:00)]
 이번주 | 의사-김혜수(소화기 내과), 간호사-장수잔 다음주 | 의사-마 준(한 의사), 간호사-김명숙

선교후원

- [파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옥, 김진영, 서반석(이루다), 오감사(오사랑), 장주원(장한나), 이희숙,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 사랑), Nader(Dina), Yeshua, Reza
-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기니비사우 | 유요한(유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색(정인나)
-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경(양선) 브라질 | 브레노(에스터)
- 온두라스 | 이동철(이수민)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선영)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김인성
-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길예평(길진명), 이상훈 문화선교 | 공 민(The Bridge), 김도현(나비공방)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밀알선교회, 바실레이아 신학교, 소망 소사이티, 한미가정상담소, Gift of Vision, GMMMA, GP미주본부, AU&W, New Hope 선교 유치원, QTm America,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푸른초장의 집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 Come and See 50! '희년의 기쁨, 열방을 향해' 베델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 각국의 파송·협력 선교사와 디아스포라 이민 목회자 100여 분을 모시고 '디아스포라 미션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선교지의 헌신과 이민 목회의 열정이 만나 사역적 시너지를 일으키는 '선교의 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희년의 잔치에 베델의 모든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오신 사역자들이 참된 안식과 새로운 비전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은혜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간/장소: 4월 30일(목)~5월 3일(주일), 베델교회
 집회: 4월 30일(목) 저녁 7시 30분
 5월 1일(금) 오전 5시 30분, 저녁 7시 30분
 5월 2일(토) 오전 6시, 저녁 7시 30분
 주제 특강 및 선교사와의 만남: 5월 2일(토) 오전 9시~12시



◆ 예살 청3 공동체 수양회 예살 청3 공동체가 'Remember Your Creator 창조주 아버지'라는 주제로 수양회를 갖습니다. 청년의 때에 나와 나의 삶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도전하는 수양회가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정/장소/문의: 4월 17일(금)~19(주일), 갈릴리 수양관, 이형석 목사 (714)944-8339

◆ 베델한국학교 여름 캠프 등록 신나고 시원한 여름, 베델한국학교 여름캠프에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서는 한국어 학습과 함께 다양한 문화 체험과 즐거운 야외 활동을 통해 배움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학기 일정: 7월 6일(월)~31일(금) 오전 9시 30분~오후 1시 30분(4주, 월~금)
 등록기간/등록금: 4월 6일~24일, \$950(4월 24일까지 완납)
 등록처: koreanschool.bkc.org
 문의: 윤주원 장로 (949)892-9516, 황수정 집사 (949)562-5262

◆ 수요저녁예배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으로 한 주의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셔서 함께 부를 찬양을 미리 만나세요!

일시/문의: 4월 15일(수) 저녁 7시 30분, 조광중 집사 (949)706-4168



◆ BCA 제3회 'LOGOS' 여름 캠프 기독교 고전 교육을 바탕으로 오전/오후 세션으로 나누어, 언어(문법/작문/복클럽) 등의 아카데미와 PE, 미술, 음악 등 다양한 활동을 결합한 4주간의 프로그램입니다.

일시: 7월 6일(월)~31일(금) 오전 9시~오후 4시
 대상/문의: 1~6학년(2026년 가을학기 기준), BCA 사무실 (949)854-4013



◆ 102차 베델동산 102차 베델동산이 아직 참가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개최됩니다. 기쁨으로 섬겨주실 봉사자도 모집하오니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기간: 5월 22일(금)~5월 24일(주일)
 문의: 김병주 장로 (949)554-5581, 김성균 집사(949) 838-4110



◆ 캄보디아/태국 단기선교 팀원 모집 8월에 진행되는 단기선교 팀원들을 모집하오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캄보디아(황순현/황현주 선교사)
기간/문의: 8월 4일(화)~11일(화), 김태원 장로 (760)707-7070
- 태국(박상선/신영선 선교사)
기간/문의: 8월 10일(월)~18일(화), 김재호 집사 (714)512-7095

◆ 선교바자회 및 예약 주문 안내 'Come and Best Buy for Mission'이라는 표어 아래 선교 바자회가 열립니다. 예약 주문은 QR코드에 들어가셔서 원하는 물건과 수량을 미리 주문하시고, 당일 준비된 부스에서 선주문하신 물건을 픽업하실 수 있습니다. (7면 참고)

일시/장소: 4월 18일(토) 험시바 기도회 후, 코트야드
 문의: 김응진 집사 (213)215-4977

◆ 정기제직회 4월 25일(토) 토요험시바 기도회 후 정기 제직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 기도해 주세요

- 니카라과 단기선교가 4월 13일(월)~18일(토)까지 있습니다.
- T국 단기선교가 4월 14일(화)~22일(화)까지 있습니다.

◆ 축하해 주세요 임우영/임보람 집사 가정에 딸 서아(Elle)가 지난 3월 29일(주일)에 태어났습니다.

교회학교 주중 모임 안내	주중 예배 및 기도모임 안내	베델뉴스 편집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WANA(어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arks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K~2학년) - Truth&Training / 금요일 오후 7시, 각 클래스(3~5학년) ■ 중,고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YM(영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채플 - CIM(한어중고등부) /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살롬채플 ■ 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시 30분, 한국학교 각 교실 ■ 아기학교: 수요일(15~48개월) 오전 9시 45분, 할렐루야채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중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본당 ■ 험시바 새벽기도회(토): 오전 6시, 본당/온라인 ■ 베델 수요저녁예배: 오후 7시 30분, 본당 ■ 예살금요예배(청년): 오후 7시 30분, 임마누엘채플 ■ 주일 레위기기도 모임: 1~3부 예배시간 중, 컨퍼런스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김경자 권사 ■ 기자: 강정훈 집사, 강은혜 집사, 권두경 집사, 김규현 집사, 김유미 권사, 배민정 집사, 박혜성 권사, 안정선 권사, 이혜림 집사, 이소영 권사, 황수정 집사 ■ 사진 기자: 박상근 장로, 최효정 집사, 차규양 장로 ■ 번역: Grace Yi 전도사

비전 주차장 3377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주차 시 (Employee Reserved Parking)은 피해서 주차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

베델/갈릴리수양관 31600 El Cariso Trail, Lake Elsinore, CA 92530 ◆ 수양관전화번호(예약문의) (949) 943-9697 ◆ E-MAIL bgrcenter@hotmail.com

